· 지방도 861호선

지리산국립공원 권역은 크고 넓을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원시성과 신비스러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80년대 지리산을 대상으로 한 탐방 매력요인 등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리산국립공원 내 성삼재 일원(1,000m)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 1900년대 : 목재를 수탈하기 위한 산판도로 개설
· 1960년대 : 군사목적으로 도로 개설
· 1980년대 후반 : 관광목적으로 도로 개설

비포장에서 포장된 도로 개설은 성삼재, 노고단 등의 탐방편의 제공이라는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수익이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성삼재, 노고단, 뱀사골 방면코스가 총 24㎞정도 됩니다. 2006년 교통건설부가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힐 정도로 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일명 '해탈의 길' 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길이 너무 구불구불 험하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도로개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데, 도로개설로 인한 서식지의 조각화로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117건의 로드 킬은 동물에 위협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진행중인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도로에서 로드 킬을 당하는 주요동물은 청설모, 다람쥐, 멧토끼 등이 있고 논과 인접한 곳에서는 고양이, 삵,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변에 펜스나 생태통로와 같은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861호선



지방도 861호선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 도로이용체계 개선계획 연구_국립공원관리공단_2007.12

노고단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로 위치한 시암재 휴게소입니다.

861번 지방도로의 해발 약900m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관도 노고단의 아름다운 경관만큼이나 환상적인 운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찍 찾아오는 겨울에 호떡이 짱 맛있습니다. ^ ^*



시암재주차장



시암재휴게소

해발 1090m에 자리한 성삼재입니다.

성삼재의 유래는 삼한시대의 마한군에 밀리던 진한왕이 전란을 피하여 이곳 지리산 심산유곡으로 찾아들어 달궁계곡에 왕궁을 세우고 피난할 때, 북쪽능선에 8명의 장군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으므로 팔랑재, 서쪽능성은 정장군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으므로 정령재, 동쪽은 황장군이 맡아 지키게 하였으므로 황영재, 그리고 남쪽은 가장 중요한 요지이므로 성이 다른 세 명의 장군을 배치하여 방어케 하였으므로 "성삼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삼재에서 바라보는 경관 또한 아름답습니다. 운좋은 날에는 광주 무등산과 영암 월출산까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삼재 휴게소의 우동과 파전이 짱 맛있습니다. ^ ^*



성삼재휴게소



성삼재에서 바라본 운해

국립공원 가이드1: 지리산 이고봉.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노고단 길

성삼재 휴계소에서 노고단대피소까지의 거리는 2.7km로 과거 노고단 일대의 주둔하던 군통신부대의 군사용 도로로 이용 되다가 1990년대 군통신부대가 철수(일부) 되고 그 이후 탐방로로 재정비 되었다.

기존의 노고단 길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인공적인 콘크리트길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노고단 대피소에서 600m정도 올라가면 KBS중계소가 나오는데 이 직원들의 교대근무와 노고단대피소 매점물품 운반 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했고, 경사구간이 심한 곳의 집중호우 시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였다.

예전 탐방로를 걷다보면 '내가 산행을 하고 있나? 여기가 산인가?' 할 정도로 흙을 밟는 구간이 적고 딱딱한 콘크리트길을 걸어야만 했었다.



구) 노고단 길



현) 노고단 길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는 이를 개선코자 '아름다운 노고단 길'이라는 이름하에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해 2007년 초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탐방로는 편히 걸을 수 있는 흙길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노고단 길은 현지 여건상 비의 양이 많고 집중식의 호우가 심하기 때문에 토양유실을 막기 위해 경사도가 심한 구간은 콘크리트로 포장 하였고, 탐방로의 좌측에는 황토를 깔아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였다.

또한 구간별로 횡단배수구를 설치하여 물길을 텄다. 부분적으로 돌(견치석)길을 조성하여 흙길과 돌길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탐방로 주변의 훼손지역은 볏집과 황마그물을 깔고 어린묘목을 심는 공법을 사용하여 현재 복원 중에 있다.



구) 노고단 길



현) 노고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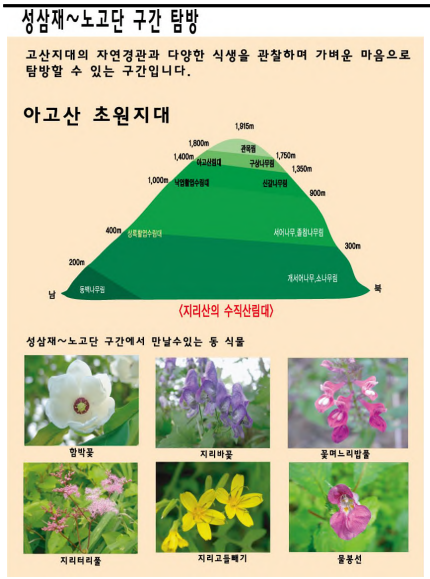


탐방로 동판 설치

성삼재 휴계소에서 노고단 대피소로 올라가는 길은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고 안개가 자주 끼고 비의 양이 많은 습한 지역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신갈나무, 함박꽃나무, 거제수나무, 산철쭉, 구상나무, 싸리나무, 산죽, 쇠물푸레나무, 산수국, 당단풍, 병꽃나무 등의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탐방로 주변에는 봄~가을까지 각가지 야생화들이 활짝 피워 있어 가는 이의 발걸음 멈추게 한다.

노고단을 올라가는 도중 주변에 돌아다니는 다람쥐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는 고라니, 누룩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조용히 탐방로를 걷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들리는 산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수 있다. 아이의 주먹만한 쯔쯔비 쯔~찌 박새, 까~~악 까~~악 큰소리로 우는 큰부리까마귀, 휘파람을 부는 휘파람새 등의 새들의 합창이 들려온다.



노고단 길 동·식물



무넹기 운해

지리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2004.

아름다운 노고단 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2008.

노고단은 지리산 종주의 출발지가 되기도 하고 종착지가 되기도 하는 곳이다. 시작이든지 종착이든지 노고단에 오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고단 돌무더기탑과 운해 그리고 봄의 철쭉, 여름의 원추리이다.



노고단의 봄 - 철쭉



노고단의 여름 - 원추리

- 노고단의 내력

지리산의 산신으로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여신을 섬겨왔는데, 그 여신은 마고성모설과 마야부인설 그리고 선도성모설과 위숙왕후설 등이 있다. 마고성모설은 노고단은 지명상 '늙은 시어머니 제사터'로, 최초의 인간을 탄생시킨 마고할미의 제사 터이고, 노고단의 돌무더기 탑은 아득한 옛날부터 마고할미에게 제사지내던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